

재점검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나는 보기 좋게 포장하여 예배하려 하나
주는 있는 그대로 다 꺼내 놓으라 하신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끼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재점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ne 13,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엘 3:17-21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150장 - 갈보리 산 위에 (통일찬송 135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동숙 집사, 김훈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예배소서 1:1-6

신령한 축복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 2021년 후반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말씀과 기도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금주는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주일예배 예배를 CDC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과 CUMC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4. CUMC 사역재계 7월 4일부터 주일예배를 1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5. CUMC 친교실 다음 주일(6/20)까지 사용하고 예배 후 정리합니다.
6. 사역 정상화 6월 27일 주일부터 2층 예배실과 친교실에서 예배와 친교, 성경공부와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7. 2세 신앙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8.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9.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6월의 사역 - 성장과 성숙 주간(13-19)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20-26)
보훈의 날(25) 선교 주일(30) 선교 주간(27-7/3)

♥ 6월 생일축하 ♥ 홍은솔(7) 김영준(8) 오승국(15) 이정연(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6/6	6/13	6/20	6/27
	구 민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6/6	6/13	6/20	6/27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 요엘 2:28-32

요엘 2:28의 “그 후에”를 구원사적 관점에서 풀어보면, 우선, 평안과 풍요의 때이다. 마당에는 추수한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통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 병에는 감람유가 넘치는 때이다. 즉, 하나님은 굶주림과 절망에 빠진 이에게 삶의 회복, 물질적 풍요를 먼저 주신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생존의 위협 앞에 영성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그 후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후**이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 삶의 목적과 물질관이 변했다. 짧은 인생 대쉬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간을 건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 소수의 특징인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떤 차별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며,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크고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영적 복이 물질의 복과 함께 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 요엘 3:17-21

하나님은 성산 시온에 거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은 남방 황무지까지 흐른다.

강물이 흐르는 곳 마다, 치유와 회복, 생명과 축복이 넘친다.

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없는 일시적인 풍요로움 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최후 승리를 선택하자.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에 더하여 승리의 축복을 누리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 요엘 3:17-21

야구의 승부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결정 된다는 의미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성도 역시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의 몫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에서 멈추지 않고, 승리의 복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더불어 받는 영적인 복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겠으나,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바로 승리의 복이며 오늘 삶의 승리 뿐 넘는 최후의 약속된 승리이다.

이는 종말에 대한 선언이다. 17절은 하나님을 “성산 시온에” 사시며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설명한다. 개혁주의 무천년설의 경우 신약교회시대를 천년왕국으로 이해한다. 지정학적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해석하지 않고, 최후 심판 후 도래할 천국으로 이해한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벨론제국에게 멸망되어, 페르시아제국 초기에 재건되고, 로마제국 초기에 확장되지만, 얼마 후 로마제국에게 다시 멸망됐다. 그 후, 아직 파괴된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다. 세상 끝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징계와 심판을 경고한다. 18절은 여호와의 전에 시작된 샘은 황무지 골짜기 싯딤까지 흘러 생명력과 축복을 가져온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가뭄과 고통은 사라진다.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넘친다.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벌을 받는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는 이유이다. 그들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풍부하던 이집트와 에돔은 황무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포로로 붙잡아 노예로 삼고, 성전을 약탈하고 우상숭배의 장소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땅을 임의로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집트와 에돔은 사탄과 그 수하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대단한 풍요로움을 누리다고 해도, 그 풍요로움은 곧 끝나게 된다. 이것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최후이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던 이집트나 에돔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싯딤이 되어야한다. 비록 초년에 축복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마지막은 풍요로워야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영원한 승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 받고 싶은가?

하나님 v. 사람

사울이 다윗과 같이 쓰임 받지 못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울의 관심이 사람들의 평판, 인정, 인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기사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쳐서 그든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중 가장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보존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전쟁 공로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다.

사무엘의 질책에 직면했을 때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든의 말을 청종하였음 이니이다”(삼상 15:24)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 변명이든 실제이든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휘하 사람든의 인정과 추종이라고 믿었고, 믿는 대로 행했다.

그가 장로든과 백성의 인기를 추종하는한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인정하실 수 없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무엘의 선언을 듣고 사무엘에게 사정한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든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 15:30).

하나님이 버리시는 순간에도 그의 관심은 백성 앞에서의 체면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지라도 백성의 인기만은 버릴 수 없었다.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면 왕 노릇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불순종의 사건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는 더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질투하고 죽이려고한 이유도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으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이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메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 자아는 사울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이 '교만'이라고 설명한다.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며,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 위임된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는 위험한 일이기에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영역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본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이다.

-[리커버 에디션] 내려놓음, 이용규



요한복음 15:5

“내가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메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 자아는 사울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